



1

1, 3 2017년 1월 피에라 밀라노에서 열린 미펠 풍경. 이 전시에는 3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했고 1만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했다. 방문객과 참가 브랜드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 2 각기 다른 방식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부스들.

## 최신 가방 트렌드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방 박람회 '미펠 더 백 쇼(MIPEL The Bag Show)'를 소개합니다. 최신 가방 트렌드는 물론 가방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에디터 안기현 컨트리뷰팅 에디터 Julia Song 자료 제공 미펠(MIPEL)

이탈리아는 '패션 박람회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년 많은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레옹> 독자 들에게도 친숙한 피티 우오모를 비롯해 국제 구두 박람회 '미캠(MICAM)', 가방과 스몰 레더 굿즈를 선보이는 '미펠(MIPEL)' 등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한 박람회부터 신진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칸템퍼리 패션 트레이드 쇼 '화이트 밀라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유행을 소개하고 있죠.

이번 9월 전시로 112회째를 맞는 미펠은 가방을 비롯해 스몰 레더 굿즈 액세서리와 우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폭넓게 소개하는 박람회입니다. 약 300여개의 크고 작은 브랜드가 참가하고 1만 명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가방 박람회죠. 브릭스, 장 폴 고티에, 몰스킨 등 가방을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는 대부분이 참가합니다. 어느 패션 박람회와 다른 미펠의 특징은 단순히 트렌드를 소개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펠 내에선 가방용 가죽이나 부속품을 판매하는 곳부터 가죽 염색 원료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스까지 가방과 가죽 액세서리의 제작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꾸린 바이어 스토어는 미펠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바니스 뉴욕이나 빔스, 버그도프 굿맨 등 세계적인 백화점이나 편집숍의 바이어부터 갤러리아와 일모, 루이스 클럽 등 한국 편집숍의 바이어까지, 각국의 바이어들이 자국의 고객과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골라 채운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 패션 트렌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죠.

제112회 미펠은 오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밀라노의 피에라 밀라노에서 개최됩니다. 미펠 홈페이지(MIPEL.COM)와 SNS 채널을 통해 미펠의 정보가 생생히 중계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가방 트렌드가 궁금한 분이라면 꼭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2



3